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주최 제 28 회 한국학 국제교육 학술대회 종합정리



제 28 회 한국학 국제 교육학술대회가 ‘**한국어,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한국학교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주제로 지난 7 월 21 일부터 25 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남미, 한국, 오세아니아, 싱가포르와 몽골 등에서 총 700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에메럴드의 도시라고 명명된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시애틀 지역의 Hyatt Regency Bellevue 호텔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번 제 28 회 학술대회는 이어령 초대 문화관광부 장관의 기초강연과 최기호 울란바토르 대학 총장 등 3 개의 주제 강연과 50 여 개의 개별 강의와 함께 5 개의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되었다.

제 28 회 학술대회를 주최한 재미한국학교 협의회(총회장 이민노)는 1981 년 발족한 이래 재미와 재외 한국학교의 교사들과 함께 '한국어의 세계화'와 '재외동포 2 세들의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활동 헌신해 왔으며 28 회 학술대회는 협의회 이사진과 집행부 임원진, 그리고 14 개 지역협의회 회장단의 긴밀한 협조로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수법', '한국학교 교육 일선에서 꼭 필요한 실용성 있는 강의'에 초점을 맞춰 학술대회를 준비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낙스 산하 각 지역협의회에서 40 여 명의 교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 1 회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집중연수**’ 사업이 재외동포재단의 후원으로 수요일부터 개최되어 전문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에 따라 총 30 시간의 교육을 실시 했으며 전문 강사로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송향근 교수, 경희대학교 고현용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재욱 교수 등 한국학 전문교수들이 강의를 했다.

제 28 회 학술대회를 위해 지원해준 기관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주미한국대사관, 한국종이문화재단(이사장 노영혜), 경희사이버대학교, 연합뉴스, 중앙일보, 경기디지로그창조학교, 뉴욕 이영희박물관, 예담한복

한글학교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집중연수 -7 월 22-24 일(수-토요일)

아래와 같은 강의 제목으로 김재욱, 송향근, 조현용 교수의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집중교육이 개최식에 이어 시작되었다.

김재욱 교수(국어학 개론 1, 한국어 문법론 1 & 2), 송향근 (교수한국어 음운론, 한국어 어문규범 1-3)

조현용 교수(국어학 개론 2, 한국어 어휘론, 한국어 교수법 1 & 2)



7 월 22 일 (목요일)

본격적인 학술대회 행사는 7 월 22 일(목) 아침 8 시 30 분부터 참가자 등록확인을 시작으로 오후 2 시부터는 제 14 회 SAT-II 한국어 모의고사 평가, 종이에숯작품 교습, 한국계 성인입양아 민족교육 등 6 개의 강의 및 제 28 회 만남의 시간 및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 이사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7 월 22 일 <강사 및 강의 제목>

제 14 회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평가 및 특강(김대영 부회장, 방정웅 평가위원장), 노영혜(종이문화 재단 이사장; 우수한 우리 종이문화의 세계화와 문화 창조력을 위한 전략 3)외 강명옥 (한국종이접기 영재교육 협회 회장, 한기선 워싱턴 종이문화교육원 원장, 신현주 부회장, 신호범 워싱턴주 상원의원(한국계 성인입양아 민족교육), 강성봉 (재외동포신문 편집국장; 미국의 유대인 교육이 재외동포 교육에 주는 시사점), 주재은 박사, 최익선 교수(하바드, 조지아대학교; 재외 한국학교 지도자들을 위한 21 세기 리더십 개발, 김희진(전 국악놀이연구소 연구팀장; 한국학교에서의 국악놀이마당



종이문화재단 강명옥 선생님의 종이접기 영재교실 시간.

7 월 23 일(금)

8 시 30 분부터 시작된 개회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주 시애틀 총영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재외동포 2 세들의 미국과 한국에 대한 이해와 언어와 한국문화를 지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재미한국학교협회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 28 회 한국학 국제 교육학술대회의 개최를 축하한다."고 전했다. 권영권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한덕수 주미대사, 이민노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총회장, 이내원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이사장, 이하룡 주 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 크리스틴 그레고이르 워싱턴 주지사 축사와 환영사가 있었다. 이어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문화 공로 표창장 및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교육 유공자 감사장 및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공로패와 감사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장: 김정근 낙스 직전 총회장

공로패 수상자: 노영혜 (낙스 한국후원회 회장), 권옥순(낙스 미주특별후원회 위원장)

감사패 수상자: 김홍준 (낙스 직전 이사장), 권옥중 (낙스 미주특별후원회 이사장), 플로리다지역협의회(27 회 개최지역)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감사장 수상자 명단

김영순(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오가타리나(성바오로 정하상 한국학교), 김신희(필라한인연합교회부설 연합한국학교) 이승숙(벤엘 한국학교), 김명숙(중남부지역협의회), 김은혜(올랜드 푸른동산한국학교), 윤찬기(콜로라도지역협의회) 정다운(베다니 한국학교), 정은경(다솜 한국학교), 이미숙(하와이 한인사회학교), 윤선미(세종한국학교), 변재원(Toronto District School Board)



7 월 23 일 학술대회 개회식

단상에 이민노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 이내원 이사장, 이어령 전 장관, 권영권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이하룡 주 시애틀 총영사, 김응권 주미대사관 교육관, 노영혜 낙스 한국후원회 회장, 권옥중 낙스 미주 특별후원회 회장,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한국 후원회장 및 교과부와 문광부 관계자 및 재미한국학교협의회 14 개 지역협의회장들이 자리했다. 개회식 후 10 시 30 분부터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세계화' 제목으로 이어령 초대 문화관광부 장관의 기조강연이 시작됐다.



기조강연 모습

개교 20 년 이상 한인학교 및 장기근속 모범교사 수상자

개교 40 주년 한인학교(2 개 학교):

워싱턴 통합한국학교, 하와이 한인사회학교

개교 35 주년한인학교(2 개 학교):

실리콘벨리 한국학교, 타코마 한국학교

개교 30 주년 한인학교(7 개 학교):

무궁화 한국학교, 빛내리 한글학교, 제일연합한국학교, 갈보리 무궁화한국학교, 남부 뉴저지통합한국학교, 사모아 한국학교, 로체스터 한국학교

개교 25 주년 한인학교(7 개 학교):

타코마 새생명한국학교, 리치몬드 침례교회 한국학교, 베다니 한국학교, 밴쿠버 통합한국학교, 무량사한글학교, 에리자베스 한국학교, 포틀랜드 제일침례교회한국학교,

개교 20 주년 한인학교(3 개교):

한인제일침례교회 한글학교, 과테말라 한국학교, 데이비스 한국학교

장기근속 모범교사(총 68 명): * 괄호 안은 소속 학교 이름

40 년 근속 이경애(워싱턴 통합한국학교, MD 캠퍼스)

30 년 근속(3 명): 강화자(그린스보로 한국학교), 백병주(로체스터 한국학교), 이의순(휴스턴 한인학교)

25 년 근속(4 명): 장동구(무궁화한국학교), 정해천(세종한국학교), 조신숙(상항기독교한국학교), 황희연(세종한국학교), 전설자(뉴저지 한국학교)

20 년 근속(8 명): 권순우(무궁화한국학교), 김리사(북알라바마 한국학교), 도정숙(밸링햄침례교회),

민명기(시애틀뷰통합)

심수목(영생한국학교), 이문희(북부보스턴한국학교), 호선희(오레곤 한국학교), 홍태명(사랑한국학교)

15년 근속(18명): 곽현자(뽀얏 한국학교), 김남석(웨더럴웨이 형제한국학교), 김미란(그린스보로 한국학교), 김미희(성김대건 한국학교), 김민정(무량사한글학교), 김순란(성김대건 한국학교), 김채영(실리콘밸리 한국학교), 백지숙(제일연합한국학교), 성옥폴링(타코마 한국학교), 유경화(오레곤 한국학교), 유문자(메이콘 침례교회한국학교), 유미옥(타코마 한국학교), 윤영란(실리콘밸리 한국학교), 이애경(앵커리지 한글학교) 임영숙(시애틀벨뷰 통합한국학교), 지정란(빛내리한글학교), 한혜정(성김대건 한국학교), 황우정(아가페 참빛 한글학교)

10년 근속 (34명): 고영란, 권성화, 김경희, 김선경, 김선화, 김연정, 김영란, 김영순, 김효진, 남궁령, 박계옥, 박규흠, 박미영, 박진민, 박희정, 서수민, 서지혜, 송은주, 원운경, 유경숙, 유명순, 이미영, 이미현, 이민정, 이순희, 이인영, 이현주, 이해연, 임현찬, 정용철, 주춘옥, 천경주, 최장희, 허화진, 홍현이

7월 23일 <강사 및 강의 제목>

이승숙 강사(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한국말과 글은 쉽지 않아요), 김선정 교수(초급학습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글교수법) 김중섭 교수(고급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휘 및 문법교육, 말하기, 듣기교육), 이의순 강사(노래-수화를 통한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 이근수 교수(동양사상에서 본 몸과 생명, 장수의 비결), 최미영 강사(동포 2세를 위한 역사-문화 교재), 김진홍 강사(기초반에서 다루는 한국어와 한글의 특징), 김선화 강사(중급반 이상 학급에서 효과적인 글쓰기 지도), 임태혁 강사(SAT-II 한국어), 황세희 강사(전통문화, 열씨구 한국어지도), 정은경 강사(2세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제적인 한국역사-문화교육), 변연경 강사(Craft와 교구를 이용한 한국어지도), 임미성 강사(다문화사회 학습자를 위한 놀이활용), 이해영 교수(중급학습자를 위한 문법 교수법), 장미영 강사(통합교육을 통한 실제적인 한국어 교육), 권말순 강사(우리 아이의 뇌를 알고 재능을 알아야), 김정자 강사(종이접기를 활용한 기초한국어 수업)

제 6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결선

금요일 오후 Hyatt Regency Bellevue Hotel의 그랜드 볼룸에서 예소울 국악앙상블의 축하공연으로 막을 연 제 6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결선 대회에는 미국 내 14개 지역 협의회 및 과테말라,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 산재해 있는 한국 학교에서 모두 17명의 학생들이 출전하여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며 그 동안 꾸준히 익힌 한국어 실력을 마음껏 발표하는 자리였다. 현재 전 세계 2천여 개 이상의 한국학교에서 재외동포 2세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역사를 배우고 있는데 이 어린 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또 꿈에 대한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대회의 목적이다.

이민노 총회장(재미한국학교 협의회)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소중히 지켜나가겠습니다'의 내용으로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김응권 주미대사관 교육관은 '나의 꿈 말하기 대회'가 소중한 꿈을 간직하도록 도와 줄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한국어도 익힐 수 있는 '일석이조'의 행사임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한 수고에 찬사를 보낸다는 축사를 전했다. 한편, 나의 꿈 말하기 대회를 처음으로 협의회 공식행사로 시작했던 손창현 12대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제 우리 모두 꿈나무들과 어울려 다시 함께 푸른 꿈을 꾸어보자고 말하고 앞으로 매년 대회를 후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회 심사 기준은 세 부문으로, 순수한 학생의 눈높이에서 쓴 건전한 내용으로 솔직성, 창의성을 보는 원고 내용과 표현력과 설득력 및 자연스러운 발표 태도 등을 보는 발표력, 내용이 청중에게 감동을 주는지 여부를 보는 전달력 등이었다.

심사위원(총 6명):

이어령 심사위원장(초대 문화부장관, 이화여대 석좌교수, 중앙일보 고문)

김응권(주미대사관 교육관)

노영혜(한국종이문화재단 이사장,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한국후원회 회장)

송향근(부산외국어대 교수, 이중언어학회 고문, 한국어세계화재단 이사)

조현용(경희대학교 교수, 국제교육원 교학부장, 국제 한국어교육학회 편집위원)

이번 대회에서는 “사랑의 가족, 고아원 원장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하와이지역협의회 이경미 학생이(한인사회학교)

영예의 대상을 받았고 9 학년 이상 학생 중에서 최고점을 받은 학생에게 주어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동중부지역 대표인 김예지 학생(벅스카운티 한국학교)이 받았다.

참가자 전원에게 주미대사 표창장과 재미한국학교협의회장 트로피가 주어졌는데 뉴욕 이영희 박물관에서 대상 수상자에게 한복 한 벌을 기증해주었고 나의 꿈 말하기 대회를 시작한 손창현 12 대 낙스 회장은 '창의상'으로 대상 수상자에게 장학금 500 불을 후원해 주기도 했다. 한편 낙스 본부에서는 무료 숙박과 여행경비를 보조해 주었고 종이접기 재단에서는 수공예 종이꽃 액자를, 예뻐한복에서는 참가자 전원에게 한복을 기증해 주었다.

3 회부터는 낙스웹(www.naks.org)에 참가자들의 발표모습을 동영상으로 올려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자료를 다운받아서 말하기 및 듣기 쓰기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게 했으며,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쓰인 글인 만큼 살아있는 현장학습이 되도록 힘쓰고 있는데 지난 4 회 대회부터 시작한 "미션두드림(Mission Do-Dream)" 리더쉽 프로그램은 엄제운 간사가 맡아서 수고해 주었다.

6 회 대회에서 대상 및 금상을 수상한 학생 학생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대상 및 창의상: 이경미(하와이지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및 금상: 김예지(동중부지역협의회)

금상: 신예슬(남미-아르헨티나), 김진솔(남서부지역), 전수진(뉴질랜드), 장유진(뉴잉글랜드지역), 정은빈(캐나다지역), 정사라(동남부지역), 이강산(동북부지역), 전수진(미시간지역), 조민재(북가주지역), 권혜인 (서북미지역), 박주원(워싱턴지역), 윤영찬(중남부), 이에원(중서부지역), 이승민(콜로라도지역), 하형훈(플로리다지역)



오후 10 시에 열린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이사회에서 제 15 대 낙스 회장단 총회장 후보로 남일, 심용휴 두 후보를, 부회장 후보로 강남옥, 강상인, 최미영 세 후보를 총회에 올리기로 했고, 선출이사로 6 명을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받기로 했으며 2011 년 제 29 회 학술대회는 개최지로 샌프란시스코가 결정되었고 30 회 학술대회는 워싱턴지역과 하와이지역이 신청되었다.

7 월 24 일(토) <강사 및 강의 제목>

학술대회 마지막 날인 25 일(토) 오전 8 시 30 분부터 '코리안들이 신대륙을 발견했다(김성규 회장)' 및 '한글의 우수성과 한국어의 세계화(최기호 총장)' 등 주제 강연이 시작됐으며 장기근속/모범교사 및 개교 20 주년 이상 학교 표창 수여식을 가진 이후 점심 식사 후에 24 개의 분반 강의가 이어서 진행됐다.

황정숙 강사(이중문화 가정의 자녀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윤주영 강사(효과적인 중급반 수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의 예), 김중섭 교수(고급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읽기, 쓰기 교육방법), 이길원 교수(한국어 교사론과 유머활용, 의사 소통교육 연구), 강용진 강사(교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아동의 아동심리와 교육이론), 앤지 문(종이문화재단 LA 지부장, 통합

두뇌개발 종이접기 놀이), 이유경 강사(시청각 교재를 활용한 재미있고 효과적인 한글교육), 김희진 강사(한국학교에서 국악놀이마당 2), 이해영 교수(중급학습자를 위한 말하기-듣기 교수법, 읽기-쓰기 교수법), 김명희 강사(초급과정 모범수업 및 교수법), 이지선 강사(고급과정의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 송석 강사(종이문화재단 자문위원, 종이접기 창조의 세계), 김선정 교수(아동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말하기, 듣기 & 읽기, 쓰기 교수법), 김연선 강사(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효과적인 수업 방법), 주재은 박사, 최익선 교수(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학교의 역할과 과제), 오금옥 강사(한국학교 교사의 자기반 경영 선생님 CEO, 남상업 교수(고학년 반에서의 멀티 미디어자료 활용방법 및 예화), 인현미 강사(꿈꾸는 아이-꿈을 키워주는 교사), 송향근 교수(한국어 맞춤법의 효율적인 교육), 전설자 강사(전래놀이를 통한 문화교육), 김용환 강사(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보인다), 엄선규 강사(시조를 활용한 효과적인 한국어 수업)

오후 6 시엔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제 28 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는 오는 9 월 1 일부터 2 년 동안의 임기인 제 15 대 회장단으로 심용휴 후보가 차기 총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강남옥, 강상인, 최미영 후보가 각각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오후 7 시 30 분엔 차세대 미션과 꿈 발표회를 시작으로 폐막 만찬과 함께 각 지역 협의회 '장기자랑' 대회가 있었고 28 회 학술대회를 마무리하며 차기 회장단에게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회기 전달식을 가지고 아쉬움을 뒤로하고 모든 일정을 마쳤다.





제 28 회 학술대회는 "학술대회를 통해 일선 학교의 교사들이 실질적인 교육법과 활발한 정보를 배우고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에 따라 잘 진행된 학술대회였고 참가한 교사들도 학술대회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잘 준비된 행사였다는 의견이었다. 나스 회장단에서는 현지 실정에 맞는 교재를 만들어 달라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능한 빠른 기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해 노력 하고자 한다.

기타

1. 재외 한국학교협의회(국가별, 대륙별) 회장단(대표자) 회의
대회 기간 중 재미한국학교협의회초청으로 참가한 재외한글학교 대표자 회의가 1,2 차에 걸쳐 개최되었다.

참가자:

이민노(재미한국학교협의회) 강여규(유럽한글학교협의회),
신옥연(캐나다한국학교협의회), 임철현, 신영숙(미주한국학교협의회),

회의 목적:

재외 한글학교의 발전을 위한 국가별 대륙별 협의회의 상호 협력과 세계한글학교교육자 포럼에 관한 기구 구성 및 조직에 관해 협의했으며 추후 각 협의회 대표들이 참가하여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또한 각 협의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교사 연수 등에 대해 강사파견협조, 재외동포 차세대(청소년) 정체성 확립과 상호 연대를 통해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및 교육정책 건의, 재외 차세대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에 관한 의견을 협의했다.

2. 간담회

1.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들과 NAKS 회장단 및 각 협의회 대표간 재외 한국어 교육에 관한 상호 관심사 협의.
2. 재미 2 세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을 위한 현지 수준 및 현실이 반영된 교육교재 개발에 대한 의견교환.
3.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 관계자들과 NAKS 임원간 상호 협력을 위한 의견 교환.
4. NAKS 임원 및 재외한글학교협의회 대표자들과 세종학당에 관한 관련 부처의 설명과 전반적인 의견 수렴